



▶ 학습목표

- 01 국제보건의 개념을 설명한다. (B)
- 02 세계보건기구(WHO)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한다. (B)
- 03 기타 보건 관련 국제기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B)
- 04 국제보건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알아본다. (B)
- 05 국제보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B)

✕ 주요용어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보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세계보건기구(WH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이종욱 WHO 사무총장



1. 국제보건(global health)의 개념

국제보건(global health)은 일반적인 공중보건에서 중점을 두고 지역 또는 국가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건강을 다루는 건강관리 분야이다. 국제보건의 한 부분인 여행보건(travel health)은 예방접종, 예방 약물, 침대 망 및 잔류 살충제와 같은 예방기술, 이동 중 치료 및 외래 질병에 대한 여행 후 치료를 통해 여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건강은 건강과 질병의 결정 요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회학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의 보건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Paul Russel이 “질병보다 국제적인 것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질병은 국경이나 인종차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보건 관계 국제기구들이 발족되었다. 최근 COVID-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보건과 여행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보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들과 국제보건 관련 비정부기구들(NGO)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국제보건관리 조직(global health governance)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의 건강 관련 정책 및 관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WHO는 국제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약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가 준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최근 국가 및 국제 보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책임 메커니즘(인센티브 및 제재 포함)을 강화하는 국제보건조약(global health treaty)으로 국제보건에 대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 FCGH)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FCGH가 다른 국제보건관리 조직들의 노력과 중복되고, 타당성이 부족하며, 글로벌 보건 규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CGH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 국제보건에 대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Global Health, FCGH)

국제보건에 대한 기본 협약(FCGH)은 2007년에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다양성적인 보건 불평등을 해결하는 국제조약으로 처음 고안되었다. 그 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정신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FCGH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제안된 조약인 FCGH는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권리와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에 있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보건에 대한 기본 협약(FCGH)이 다루는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삶 자체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 및 세계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는 보건 관련 결정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종과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보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및 국제 보건 자금조달 증가를 도모하고, 사회의 모든 부문이 보건에 대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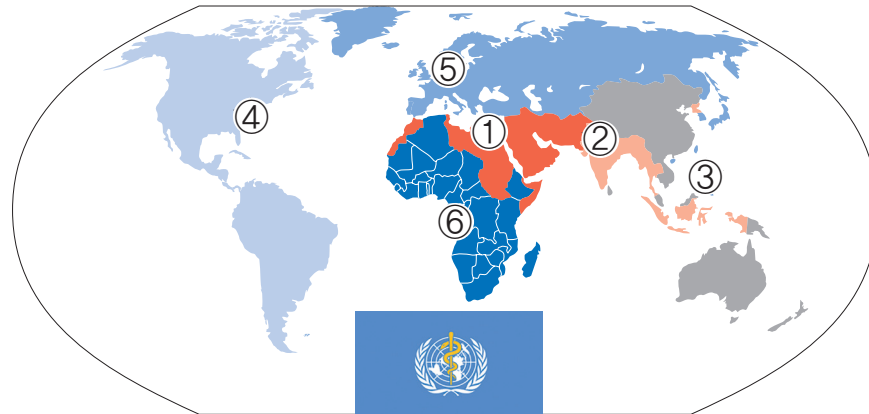
2. 국제보건 관련 기구

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이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194개 회원국이 WHO에 가맹되었으며, 그 목적은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WHO 가입국 수는 UN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UN 가맹국 수인 193개국보다 많다.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과 쿡 제도(Cook Islands)와 니우에(Niue)가 가입되어 있다.

(1) WHO의 설치 과정

1946년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회의에서 국제연합헌장이 기초될 때 국제보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1946년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WHO 헌장이 제정되고, 1948년 4월 7일 국제연합의 보건전문기관으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UN



① 동지중해 지역(Egypt-Alexandria), ② 동남아시아 지역(India-New Delhi),
③ 서태평양 지역(Philippine-Manila), ④ 남북아메리카 지역(USA-Washington),
⑤ 유럽 지역(Denmark-Copenhagen), ⑥ 아프리카 지역(Congo-Brazzaville)

그림 12-1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와 6개 지역 사무국의 위치

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로 본부는 제네바에 두고 그림 12-1과 같이 6개 지역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6개 지역은 ① 동지중해 지역(Egypt-Alexandria), ② 동남아시아 지역(India-New Delhi), ③ 서태평양 지역(Philippine-Manila), ④ 남북아메리카 지역(USA-Washington), ⑤ 유럽 지역(Denmark-Copenhagen), ⑥ 아프리카 지역(Congo-Brazzaville)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7일에 65번째 회원국(WHO 제2차 총회)으로 가입하였고 서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2) WHO의 목적 및 역할

WHO의 목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현장에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정의된 아래 기능들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국제보건사업에 대한 지휘 및 조정 권한 역할
2. UN, 전문 기관, 정부 보건 당국, 전문가 그룹 및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조직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유지
3. 정부의 요청 시 보건서비스 강화를 지원
4.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비상시 정부의 요청 또는 수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
5. UN의 요청에 따라 종교적인 영토의 사람들과 같은 특수 그룹에 의료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지원

6. 역학 및 통계 서비스를 포함하여 필요할 수 있는 행정 및 기술 서비스를 구축하고 유지
7. 전염병, 풍토병 및 기타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을 촉진하고 추진
8.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우발적 상해 예방을 촉진
9.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영양, 주택, 위생, 레크리에이션, 경제 또는 근무조건 및 기타 환경위생 측면의 개선을 촉진
10.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과학 및 전문 그룹 간의 협력을 촉진
11. 국제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 합의 및 규정을 제안하고, 이를 권고하고 수행

(3) WHO의 기능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을 요약하면 첫째,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조정 및 지휘, 둘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제공, 셋째, 전문가의 파견에 의한 기술자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간의 감염병 검역 대책
2. 각종 보건문제에 대한 협의, 규제 및 권고안 제정
3. 식품, 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4. 과학자 및 전문가들의 협력에 의한 과학의 발전 사업
5. 보건통계자료 수집 및 의학적 조사 연구사업
6. 공중보건과 의료 및 사회보장 향상 사업
7.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봉사
8. 모자보건의 향상
9. 감염병 관리
10. 진단검사 기준의 확립
11. 환경위생 및 산업보건 개선사업
12. 재해 예방
13. 정신보건 향상
14. 보건요원의 훈련 및 기술협력사업



그림 12-2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2003년
4월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사이트)

(4)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그림 12-2)은 2003년 7월 21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면서 재임 기간 중 결핵과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 질병, 조류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퇴치에 힘썼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3년간 활동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의 소아마비 박멸을 주도했으며, Global Drug Facility를 발족시켜 많은 사람들이 결핵 치료약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종욱 박사는 1981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미국령 사모아로 건너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사모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었다. 그는 린든 존슨 병원(Lyndon B. Johnson tropical medical center)에서 1983년 5월 26일까지 일하면서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리게 된다. 「한센병 잠복기 발견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센병 전문가로 인정받아 1983년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처 한센병 자문관인 지역사무처 질병예방관리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보건기구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남태평양의 사무소 거점 역할을 하던 피지(Fiji)를 중심으로 한센병 예방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후에는 결핵 담당관으로 결핵은 물론이고 예방 백신을 처방할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아동 질병예방에 나서게 된다.

199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 및 어린이백신사업 총괄 책임자를 맡아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며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년 뒤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냈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에서는 그를 ‘백신의 황제’라 칭하기도 했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 결핵퇴치사업 국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현재까지 보건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발한 민관협력사업으로 평가받는 글로벌결핵퇴치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Stop TB)과 글로벌약품조달기구(Global Drug Facility, GDF)의 출범을 이끌었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 제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보건기구의 수장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04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소아마비·결핵 퇴치, 흡연 규제 등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誌)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

1983년 WHO 지역사무처 한센병 자문관으로 시작해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여

러 직책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과 역할을 강화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데 헌신했다. 특히, 그가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공중보건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인플루엔자, 아시아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봉사활동은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2006년 5월 22일 세계보건기구 총회 준비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으며, WHO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 증진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아 국위를 선양한 공적을 기려 2006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국제보건의 발전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헌신한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뜻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보건인이 꼭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2) 기타 보건 관련 국제기구

국제연합총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국제보건에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은 1946년 12월 11일 설립되었다. 원래 이름은 국제연합국제아동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접종, 식수문제 및 환경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여성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 196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33개국에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위원회는 독립적인 로컬 비정부단체 이름 아래 설립되었다. 국가위원회들은 사립 기구로부터 후원금을 모으고, 각 나라의 아동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옹호 활동을 펼친다. 유니세프의 후원금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개개인의 기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력체들의 기부에서 나온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미디어, 국가나 지역 정부 직원들, 비영리단체들, 의사나 변호사,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권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약 43년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다가 199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설립되어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각 국가 '자립'을 위한 유니세프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첫 번째 사례이다.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국제연합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의 생산 및 분배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HO와 연계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1963년 설립하여 식품안정성, 농축산물 생산규격 등을 관리한다.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페인, 1996, 2002, 2009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 기아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10억이 넘는 세계 기아 인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WFP 등과 연계, 식량부족국가에 식량 및 농업생산기술 제공, 국가 간 연계 등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다.

(3)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국제 노동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19년 10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산하에 설립된 이 기관은 UN의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전문 기관이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ILO에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187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 약 40개의 현장 사무소를 두고,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900명이 기술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퇴치, 이주노동자 및 가사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4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8개의 핵심협약을 정하고 있다(표 12-1). 국제노동기구 187개 회원국 중 약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개 또는 8개 협약을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에 더해, 최근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표 12-1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들과 우리나라의 비준 현황

분야	협약	제정 연도	우리나라 비준 여부(연도)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2021. 4.)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2021. 4.)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	○(2021. 4.)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1957	×
차별 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1997. 1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1998. 12.)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1999. 1.)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2001. 3.)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해 국제연합총회의 하부조직으로 1965년에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세계 132곳에 상설 주재소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중에는 자금이나 기술원조를 위한 조사도 포함된다. 소득 향상이나 건강개선, 또는 민주적인 정치, 환경문제와 에너지 등 모든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가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 실시는 다른 많은 조직이나 단체, 기관 등과의 제휴로 행해진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제연합(UN)의 국제연합자원봉사단(UNV), 국제연합자본개발기금(UNCDF),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UNIFEM) 등 3개 단체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5) 국제연합구호부흥행정처(UNRRA)

국제연합구호부흥행정처(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는 물론, 보건상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43년 미국을 비롯하여 44개 국가가 모여 설립하였으며, 질병전파의 예방을 주로 한 국제 간의 협력이 되어 오다가 1946년 WHO 발족의 기초가 되었다.

이 외에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FPA), 국제연합마약류통제본부(UNDC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및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보건 관련 유관기관으로서 인류의 건강, 복지 등 보건에 관한 일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국제연합 산하 기관으로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 지휘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다. UNEP는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된 인류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에서 그 설립이 처음 논의되었다. 총 113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257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인간은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환경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인간환경의 갈등은 현 인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은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환경이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나아가 생존권 자체의 본질임을 규정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72년 12월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합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결과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설립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 프로그램들을 실행, 조정하기 위해 우선 총회에서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이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연합 내의 ‘환경전담 국제정부 간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지구환경을 감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환경 동향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 합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에 경비와 기술인력을 지원해 환경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국제연합의 환경 관련 정책 수립, 지구환경의 감시, 환경 관련 국제 협력 및 조정, 환경 관련 지식 발전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 보존과 정책 증진을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 각 영역의 참여를 통한 국제환경기준의 국내 이행을 주장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제도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며,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구환경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 국제보건 관련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국제보건 분야에서도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는 공식기구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제보건 관련 NG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직접적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식수, 비타민 보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영양실조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관련 NGO들은 필요한 분야에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당 국가가 지속 가능한 국내 보건 해결책 개발을 돕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의 예로는 보스니아 투즐라(Bosnia Tuzla)와 요르단 암만(Jordan Amman)에 있는 이라크 물리치료사, 의사 및 재활 클리닉 관리자에게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국제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연수생들은 모국에 돌아가서 사지가 절단된 환자, 척추 및 두부 손상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국제보건에 전념하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 국제원조구조기구(CARE International, 케어 인터내셔널),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의료봉사단(International Medical Corps) 등이 있다.

1)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스위스의 민간기구이다. 제네바협약 및 관습법 규칙에 따라 전쟁, 내란 등의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 전상자, 포로, 실향민, 민간인 등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도주의 단체이다.

1863년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 단체 중 하나로서,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을 탄생시켰으며, 제네바협약과 국제인도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5,000여 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0년간 각종 전쟁터에서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으로서 1917년, 1944년, 1963년에 세 차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노벨상 최다 수상 단체에 등극하였다. 단체 명의로 받은 상은 공식적으로 총 세 차례이지만, 본 위원회의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이 1901년에 초대 노벨평화상을 수상, 일반적으로 이 수상까지 ICRC가 수상한 것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ICRC의 노벨상 수상 횟수는 모두 네 차례가 된다.



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원칙은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ICRC의 임무이다.

1. 인도(humanity)-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
2. 공평(impartiality)-국적,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행동
3. 중립(neutrality)-적대 행위 발생 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음
4. 독립(independence)-국내 법규를 준수하되 적십자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
5. 자발적 활동(volunteerism)-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음
6. 단일(unity)-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월)사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함
7. 보편(universality)-각국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 책임, 의무를 가지고 활동

ICRC 설립자들은 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그들을 원조하는 이들까지 보호하는 표장이 필요함을 인식, 익숙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스위스 국기의 반전)를 표장으로 채택했다. 종교적 이유로 십자가의 사용이 어려웠던 일부 국가들은 적십자 대신 적신월(붉은 초승달)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추후 공식 표장으로 승인되었다. 이어 종교적·문화적·정치적 함의로부터 자유로운 적수정이 적십자운동의 새로운 표장으로서 추가 채택되었다. 제네바협약에 의거하여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그림 12-3)이 부여된 사람, 차량, 건물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림 12-3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

2)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는 1971년 12월 20일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슈네르(Bernard Kouchner) 등 청년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비정부기구(NGO)로,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Biafra) 전쟁에서 국제 적십자사 활동을 하다가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아래와 같은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 민간단체로서 주로 의사 및 보건 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체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

1. 국경없는의사회는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다.
2.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편적인 의료 윤리를 따르며, 누구나 인도주의적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3. 구성원들은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유지한다.
4.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하고,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수호는 국경없는의사회 정체성의 핵심이며, 이들의 활동 원칙은 ① 공정성과 중립성, ② 독립성, ③ 책무성, ④ 의료 윤리, ⑤ 증언 활동 등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적인 봉사과 헌신에 대한 공로로 1996년 서울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99년 당시 회장이었던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박사가 국경없는의사회 대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3) 국제원조구호기구(CARE International, 케어 인터내셔널)

국제원조구호기구(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International, CARE international)는 1940년대에 교전국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구호단체로 뉴욕에 본부가 있다. 현재는 10여 개국의 멤버들로 ‘케어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미국 정부는 교전 국민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시구제국(War Relief Control Board)을 설치하였다. 한



편 민간에서도 구제사업을 벌여 1943년 그 중심 기관으로 대외봉사협회(American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for Foreign Service)를 설립, 이 협회에 의해 조직된 것의 하나가 CARE이다. 1945년 CARE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유럽구제협회(Cooperative for American Remittances to Europe)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52년 명칭을 CARE로 바꾸고 대상 지역도 넓혔다.

케어(CARE)의 목적은 구제품을 전란국(戰亂國)이나 개발도상국의 개인 또는 단체에 증여하는 데 있고, 품목은 주로 식량이지만, 의류·문구·의료품이나 산업기구에 까지 미치고 있다. 증여를 받는 나라와의 협약에 의해 구제품은 해당국에 저장되며,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고 그 나라 정부 물자의 배급과는 별도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 어린이의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민간기구이다. 1919년 영국의 에글랜타인 켄(Eglantyne Jebb)과 도로시 벅스톤(Dorothy Buxton)에 의해 설립되었다.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중 최고의 역사와 아동보호기구 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아동 실태를 목격하고 그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한 ‘세이브더칠드런펀드’가 기원이며, 1920년 스위스에서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연합이 출범되어 세계적인 기구로 확장되었다. 1977년에는 국제 세이브칠드런연맹이 설립되어 이후 국제연합과 협력하며 세계 각국의 재해지역 아동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2019년에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으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120개국에서 활동하는 29개의 국가 회원 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민간기구이다. 이 기구는 특히 UN 아동 권리 선언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잘 조율된 비상구호활동을 통해 아동을 구하고 전쟁과 폭력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1953년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연합하여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전쟁고아 등 한국전쟁 피해자 대상 구호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 말 전후 구호사업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1972년에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지원하였다. 1981년 우리나라도 수혜국에서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연맹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지원국으로 발전하였다.

대한민국 세이브더칠드런에서 2007년부터 대표 참여 캠페인으로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은 후원자가 직접 떠서 보낸 털모자와 후



그림 12-4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의 모자 뜨기 키트와 완성된 털모자(from Wikipedia)

원금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관리를 지원하였다(그림 12-4).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털모자를 씌워 체온을 2°C 높이는 켄거루 케어는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저체중, 저체온인 신생아의 생존을 도울 수 있었다.

5) 국제의료봉사단(International Medical Corps)

국제의료봉사단(International Medical Corps)은 1984년 미국 의사 및 간호사 그룹과 함께 Robert Simon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소속이 없는 민간 조직이다. 재난, 질병 또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와 의료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구제하는 데 전념하는 글로벌 비영리 인도주의 지원 단체이다. 이 조직은 재난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분쟁지역에 응급의료 구호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에 부족했던 곳에서 자립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